

가을 안주 삼아 독일마을 맥주파티 가볼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남해 금산



창원 창동예술촌



만어산의 너덜경의 돌들이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듯 산 정상상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 바닷속 물고기 떼를 연상케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기획

경남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處暑·23일)는 가을을 알리고, 사람들은 삶의 여유와 재충전을 위해 길을 나선다. 마음의 여유와 안식이 필요하다면 경남의 명소를 찾아 자연과 더불어 함께 치유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가을이면 경남에서는 전국 최대의 국화축제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비롯해 남해 독일 맥주축제, 천년의 숲 함양 상림숲이 보여주는 가을 단풍, 천년의 비경을 간직한 남해 금산 보리암과 밀양 표충사·만어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가 열린다.

10월 9~11일 ... 파독전시관 볼만

금산서 보는 남해 섬 환상적 풍경

◇남해 독일마을과 금산

보물섬 남해로 가보자. 눈앞에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물결방조제부둣마가 펼쳐지는 남해 독일마을.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와 영자가 살고 있는 곳이다. 고국을 떠나 외화벌이에 나선던 파독광부와 간호사 30여명이 귀국 후 이곳에 터를 잡고 마을을 이뤘다. 주황색 기와와 하얀색 벽이 특징인 독일식 주택에 살며 관광객과 독일문화 공유한다. 지난해 6월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파독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마을주민들이 해설을 해준다. 매년 10월 이곳에선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열린다. 정통 독일맥주의 독특한 맛과 다양한 독일식 안주가 독일마을의 낭만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올해 맥주축제는 10월 9~11일 열린다.

다도해의 푸른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산에 올라보는 건 어떨까. 경치가 빼어나 소금강 또는 남해 금강이라 불리는 남해 금산(681m)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다. 금산은 망대 문장암 등 38경을 품고 있는데 기기묘묘한 바위들마다 아름답고 신비한 전설과 사연이 숨어 있다. 정상에 서면 남해바다에 접점이 떠 있는 섬들과 해수욕장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정상 부근엔 우리나라 3

대 기도처의 하나인 보리암이 있다. 8부 능선까지

도로가 나 있어 20여분만 걸으면 정상에 갈 수 있다. 상주은모래비치 인근 금산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면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신라때 홍수 막으려 만든 인공숲

9월이면 30만 포기 꽃무릇 장관

◇함양 상림과 물레방아골 축제

남만 가득한 함양으로 떠나보자. 천년의 숲 상림은 연인과 친구, 가족을 위한 추천 여행지. 숲속 오솔길을 걸으며 사계절 남만이 가득한 상림에서 꽃맞춤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상림은 신라 진성여왕 때 당시 천령태수로 있던 최치원 선생이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성한 인공숲이다. 총면적이 21ha이며 숲 길이는 1.6km에 달한다. 은행나무 생김나무 비목나무 개암나무 등 120여종 2만여 그루의 낙엽·활엽수가 독을 따라 어우러져 자라고 있다. 상림은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 사철이 아름답다. 그중에서도 가을 상림이 으뜸인데 화려한 단풍과 꽃무릇은 ‘국민 볼거리’가 됐다. 30만 포기의 꽃무릇이 9월의 상림을 붉게 물들인다. 가을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데 발목을 덮을 정도로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추억을 담기에 좋다. 상림공원 옆 연꽃단지엔 또 다른 볼거리.

6만6000㎡의 연밭엔 백련 흥련 황련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수생식물 학습장도 조성돼 있다.

오는 9월 상림공원을 찾으면 물레방아골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전국음악경연대회, 시조경향대회, 풍물·국악경연대회, 한글·한시백일장뿐 아니라 연극공연 축하공연 가요제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축제 기간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 055-960-5161.

만마리 물고기가 돌이 된 만어산

변란때 땀 흘리는 표충비의 신비

◇밀양 만어사, 표충사

얼음골과 만마리 물고기가 돌이 되었다는 만어사, 나라에 큰 어려움이나 정쟁 등 변란의 징후가 있을 때 비면에 땀이 흐르는 흥제사 표충비는 밀양의 3대 신비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만어사(萬漁寺)는 만어산(萬漁山·670m)의 너덜경(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의 돌들이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듯 산 정상상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 바닷속 물고기 떼를 연상케 한다. 너덜경의 돌들은 만어사와 함께 신비로운 두 가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깨닫고 낙동강 건너에 있는 무적산의 신선(神僧)을 찾아가 새로 살 곳을 부탁했고, 신선은 용왕의 아들에게 가다가 멈추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해줬다. 용왕의 아들이 길을 떠나자 수많은 고기떼가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가 멈춘 곳이 만어사이며 만어사에 이르자 용왕의 아들은 큰 미륵돌로 변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고기들은 크고 작은 돌로 변했다고 한다. 천년고찰 표충사는 단장면 구천리의 제약산에 깃들여져 있다. 신라 태종무열왕 원년(65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 표충사의 절 이름은 죽림사(竹林寺)였다. 이후 흥덕왕 4년(829년)에 절 이름이 영정사(靈井寺)로 바뀌었다.

나방에 걸린 흥덕왕의 셋째 왕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두루 약수를 찾아다니다 이곳 죽림사에서 약수를 마시고 완쾌되자 흥덕왕이 기뻐하며 가람을 중창케하고 절 이름도 ‘영정사’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큰 절집 표충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짙고 푸르고 깊다.

바다 옆 10만송이 국화 축제

골목마다 마산의 추억 오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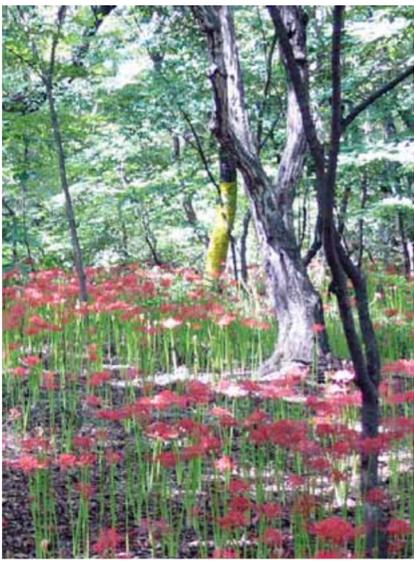
◇창원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창동예술촌
바다 옆에서 국화꽃 10만 송이가 뿜어내는 향이 마음을 흔드는 때가 다가온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창원 마산항 제1부두에서는 ‘제15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화 상업제배 시배지였던 창원에서 매년 열리는 의미있는 ‘우수축제’로 140만명 이상이 다녀간다.

29일 전야제로 시작하는 올해는 세계기네스 기록 경신을 위한 1510송이의 다분대작 전시, 국화미로 정원, 국화 돌레길, 향기 정원을 비롯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디즈니 마을 등 11개 테마구역을 구성해 전시한다. 또한 해상무지킴이 불꽃쇼, 국화산악 홍보관 특별전시, 창원시립예술단의 공연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과 오동동 일대에 있는 창동예술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50~60년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곳이다. 골목모습을 복원하고 마산 골목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출한 마산 흔적골목, 조각가 문신 선생의 예술 세계를 반영한 문신예술골목, 마산르네상스시대를 담은 ‘에펠드 창동’ 등 3대 테마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남신문 김지현기자 pressk@knnews.co.kr

함양 상림숲 꽃무릇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